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등 독거노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인 "두레사랑방"이 올해도 컨텐츠를 더욱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 '두레사랑방' 운영

남원시, 전국최초 24시간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등 독거노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 2014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인"두레사랑방"이 올해도 컨텐츠를 더욱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두레사랑방"은 동절기 4개월간 마을 경로당에서 24시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추위로 인한 난방비 가중과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2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독거노인 및 주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5%로 나와 2015년에는 25개소를 확대하여 48개소를 운영했다.

이어 2016년에는 23개소를 확대, 7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현재는 총 81개소로 늘려 행복이 가득한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두레사랑방"이용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12월 중 기존 71개소 및 올해 신규 신청한 19개소 두레사랑방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두레사랑방 이용 노인들은 "혼자 밥을 먹으면 맛이 없는데 여럿이 같이 해 먹으니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좋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어 참 좋다. 두레사랑방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며 추운 겨울철 두레사랑방이 독거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혼자 남은 독거노인들의 고립감이 점점 커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원시 시책사업인 "두레사랑방"운영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독거노인이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보다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두레사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 납부 · 시간당 6500원 동결

남원시는 올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기존 현금계좌 이체방식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영아종일제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 24개월까지 지원되던 영아종일제서비스(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종일 제공)를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기본단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6,500원으로 동결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각 가정의 사정에 협조적으로 대응, 자택 내에서 아이 돌봄을 선호하는 가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입됐다. 돌보미는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정부지원 가정, 정부미지원 가정으로 나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으로 아이를 돌볼 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미지원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정부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등급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2016년 한해 동안 150여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 아동 수는 240여명에 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액이 3억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 늘어났다며, 2017년에는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새해 업무보고회 진행

주요업무 파악 등

순창군이 6일 전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새해 업무보고를 갖고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단행된 상반기 인사 후 바로 실시돼 부서 이동을 한 실과장들이 빠른 시일내에 부서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라는 황숙주 군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고회는 황 군수가 직접 주재 했으며 전체 실과장이 참여해 올해 진행되는 75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와 국가예산확보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270m 전국 최장 구름다리 설치사업인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을 비롯해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강천산 수체험 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발족 준비, 잉여농산물 수매 및 가공, 귀농귀촌인 1500명 달성 등 관광과 농업분야 사업들이 집중 논의 됐다.

또 토마토고추장 소스 고급화, 투자선도지구 조성,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장류산업의 변혁을 통해 미래 순창을 선도할 장류분야 사업들과 공공승마장 개장운영, 유소년 야구단 발족지원, 당뇨환자 상시관리 등 올해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정유년 신년교례회 개최

고창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정유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지는 신년교례회가 고창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조병채) 주최로 지난 6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근 도의원, 군의원, 정기수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장, 재경군민회 임정호 회장, 재전군민회 이익희 사무국장, 재광군민회 김기동 회장,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 속에서도 재외군민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고창인의 저력을 발휘해 35개 분야에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했고 올해 군정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 90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올해는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쉴 수 있고, 살기위해 오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올해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천년의 역사, 희망의 문화관광도시 ▲희망의 싹을 틔우는 명품복지실현 ▲내일이 더 행복한 경제도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혁신도시 ▲모두가 꿈꾸는 안전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고창발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고창군애향운동본부 조병채 본부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창군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오늘날 고창군의 번영을 이뤘다"며 "올해도 화합과 협력으로 6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함께 힘쓰고 매진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대여실 · 수유실 등

순창군이 올해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선언하고 기반확대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가장 기대가 모아지는 사업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이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도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문화의 집 1층 작은도서관 공간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한편 기존 시설의 활용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총 3억 6천만원을 투자하며 규모는 175.7㎡로 장난감 대여실, 역할 놀이실, 놀이터, 장난감 소독실이 들어서며 수유실, 북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부모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특히 쌍치, 복흥 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면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택배 배달서비스도 진행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올해 7월 사업을 완료하고 군민들에게 본격 개방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군은 일품공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시설에 장애물 미끄럼틀, 어린이용 암벽타기, 소규모 배드민턴 장 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을 추진한해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극기훈련장, 서바이벌 체험장, 야영장, 숲놀이동산 등 대형 청소년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페스티벌도 올해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음악, 체육 동아리 7개 지원 프로그램과 연극, 뮤지컬 공연관람도 4회 진행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천문 과학동아리 운영, 단오 체험행사, 생명평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설 문화 예술 놀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에도 2억 6000만원을 투자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 싶다" 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 현안 사업을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내일 부터 2월 3일까지

임실군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18회에 걸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주산품인 벼, 고추와 농업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Top5 융복합프로젝트 쌀가공식품개발을 비롯해 농촌여성반 등 7개 분야 교육을 군청 농민교육장과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의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어려워지는 영농현장 극복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고 말했다.

한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교육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력육성팀(☎6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임실군,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임실군은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내 경로당 및 학교를 전문가가 방문해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으로 치주질환 진행을 억제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구강생활태도 개선 일환으로 올바른 칫솔질 및 틀니사용법과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구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진료 기회를 한층 확대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취약계층 구강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로컬톡톡

고창군 농업진흥과, 생필품 전달

고창군 농업진흥과 직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진흥과는 지난 6일 온정이 필요한 공음면 2세대를 찾아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달된 생필품 등은 농업진흥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뜻깊은 봉사활동에 공음면에서도 함께 참여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은 "날씨는 춥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만은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잘사는 고창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도서관, 어린이 참가자 모집

임실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탐정! 화폐 속 역사를 찾아라'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예비 초등생 3~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올바른 역사관 성립과 흥미 유발을 위해 화폐 속 역사 이야기 찾기, 나만의 화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활동이 마련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매개체로서 도서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립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전래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승진 임용예정자 발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5일 '2017년 정기 심사승진 임용예정자' 2명을 발표했다.

순창경찰서 자체 심사평가에서 치안수요, 치안종합성과평가, 의무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생활안전교통과 양선정 경사가 경위로, 수사과 이상훈 순경이 경장으로 각각 승진임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승진심사는 평소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찰관을 선정하도록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 대해 토론·발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했다.

한편 신일섭 서장은 "승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평소 맡은바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경찰들이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